

# “대형 공사 지역업체 참여 방안 강구하라”

##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 ... “아르바이트 대학생 교통비 지급 형평성 맞게”

고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7일간 진행된 고성군 청 실과소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홍봉선 위원장은 “신규 및 장기 근속공무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기관에 위탁해 부서별로 전직원이 분산 입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진 의원은 군의 우리군민 운동과 관련 “군부대에서는 행정협조차원에서 산불 홍보 깃발을 군용차량에 모두 달고 다니는데 고성군 공무원들은 산불 깃발도

안 달고 고성군 뱃지도 안달고 다닌다”며 “군 뱃지를 추가로 제작해 전 직원이 달고 다니게 하라”고 주문했다.

고선기 의원은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찾아서 일하는 풍도가 미흡하고, 도덕적 해이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처벌이 강해져야 하는 면도 있고, 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황상연 의원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관련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3천원씩 지급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구분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고



홍봉선 위원장



고선기 의원



김진 의원



함명준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

했다. 함형완 의원은 “정책실명제를 위해 직원들의 주요업무평가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독려해야할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함명준 의원은 “지난 2006년 정례회 때부터 속초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7월 중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인사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봉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통해 “재정지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과감히 없애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지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함형완 · 조의교 논쟁에 ‘감사 중지’

## 함 “종잇장 인구수 필요없어” ... 조 “위법 인정 · 교부세 더 받는다”

### 출산양육지원금 부당지급 논란

18일 진행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양육지원금 부당 지급 문제를 놓고 함형완 의원과 조의교 기획감사실장이 논쟁을 벌여, 감사가 한때 중지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함형완 의원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과 관련 “형식적 요건과 실

질적 요건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만일 있다면 지원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는 관련 규정에는 실제 거주자가 고성군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고성군으로 돼 있지만 실제 거주는 속

초에서 하는 직원들 가운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의교 기획감사실장은 “이 방송이 나가고 있겠지만, 사실 위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며 “어차피 속초시에 있으면 속초에서 받는다고 답변했다.

조실장의 말은 실제로 살기는

속초에 살지만 고성군에 사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해 놓으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주민등록을 속초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속초시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러자 함 의원은 “종잇장 인구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재차 따졌으며, 조실장은 “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맞섰다.

그러자 함의원은 “얼마나 더 받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홍봉선 위원장이 마이크를 끄고 감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함 의원은 약 5분이 경과한 뒤 재개된 감사에서 “불법부당하게 지급된 출산양육지원금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지난 12일부터 7일간 진행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대미는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감정을 남긴 상태에서 그렇게 마무리됐다.

최광호 기자

## 이동기 위원장 민주당 ‘평창특위’ 위원에

이동기 민주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사진)이 민주당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종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위’를 ‘지원 특위’로 전환하고 손학규 대표를 위원장으로, 최종원 도당위원장과 이광재 전 지사를 공동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 이동기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 국제경기유치특위 의원, 외통위 간사, 강원도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강원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회 의장단 등 23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동기 특위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침체된 강원도와 관광문화체육사업의 전반적 호기를 가져올 수 있으나, 강원 북부지역의 핵심사업인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 및 기존 SOC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과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 송훈석 국회의원 수협중앙회장 표창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송훈석 의원이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이유는 ‘어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부활하는 내용의 ‘수산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공로 때문이다. 송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11일에는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쌍끌이 방식의 무분별하게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도내 수협조합장 전체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송훈석 의원은 “소외되어 온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어업인의 날을 국가차원에서 기념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해 나가는 등 어업인의 대변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